

연중 제19주일

기도서 409 면(A해)

제1독서: 1 열왕 19, 9a. 11-13a

제2독서: 로마 9, 1-5

복음: 마태 14, 22-33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0042·0043

□강론



『민음』

소순형 신부

오늘 복음의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 주저함 없이 물 속에 뛰어든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두지 않는 행동이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을 가지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고고 어두운 우물로 뛰어 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실리 없지만) 당신은 아무 걱정없이 하느님께 신뢰심을 갖고 용기 있게 뛰어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아마 선뜻 뛰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왜일까? 선택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부족이 아니겠는가?

요사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행동한다. 우리 이웃들의 행동이 우리들을 실망시킨다. 우리들은 이미 사람들의 불신에 익숙해져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으로 하느님도 믿지 않으려 한다.

또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의 힘이나 지혜를 더 믿는다. 자기의 생각이 하느님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당장 자신에게 이롭지 못하리라고 판단되면 하느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이 없다.

믿음이란 것이 하느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맡기는 것이란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 어찌 믿음이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기 보다는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우리의 믿음 부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전 생명을 바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신데.....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잊지 않으신다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보통 하느님 아닌 것에 더 애착을 갖고 희망을 두며 산다. 마치 하느님 아닌 것에 구원과 행복과 평화가 있거나 하는 양.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을 박차버린다. 스스로 배반당해 그것들이 헛것이었던다는 것을 느끼는 그 날까지.....

그러나 지금은 비록 시련속에 살더라도 미래까지 내다 보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계획의 일부임을 믿으며 자기의 전 존재를, 어느 처지에서나 하느님께 내맡기며 사는 사람은 참말로 복된 사람일 것이다.

<해마라기 농장, 휴양>



노동 관계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

-빈곤의 악순환-

영국의 경제 역사 학자인 하일브로우너는 「빈곤의 악순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적은 생산→적은 수입→적은 수요와 적은 저축→적은 투자→적은 생산. ●영양실조→나쁜 건강→노동력의 결핍→적은 임금→영양실조. ●교육의 결핍→실직→가난→학자금의 부족→교육의 결핍. -

최근 한국 천주교회는 노동 관계법의 문제점을 들어 그 개정을 주장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교회밖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못하다. (어쩌면 폐쇄된 정치현실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 모습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농민들은 왜 그러한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고 묻는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장삿군도 어찌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느냐고 되물기도 한다. 이는 우리에게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침묵을 지키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나쁜 근로조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요, 먹고 살기에 바쁜 노점상의 아들 딸들이다. 빈곤의 악순환이 농민의 아들을 배움의 자리에서 밀어냈고, 그래서 그들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빈곤의 악순환은 그들을 또다시 빈곤의 수렁 위에 서게 한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고리에 발목이 매어 고통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잠언의 경교에 귀를 기울이자.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제가 울부짖을 때 들어 줄 이 또한 없다."(21, 13)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는 호소에 귀를 막지 말자.

순정이 산책



홍보국
민음 신
말씀이다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②

2. 현행 노동 관계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나?

인류의 역사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의 확보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현대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입법화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때 노동자가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악화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반노동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에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인간적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하는 데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노동문제가 대화의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들이 스스로 재력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와 정부기관의 뒷받침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노동 3권의 핵심이며 단체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 단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란 이미 단체행동을 전제하고 결성된 단체이다. 대구·부산의 택시운전자들이 일으켰던 집단적 항의 시위사태도 따지고 보면 노동조합을 형식으로는 결성시키지 않았던 것은 무력화시키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반민주적 성격에 그 원인이 있다.

노동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유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에도 명문(제31조)으로 규정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노동은 그 자체의 성격상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힘, 공동체를 건설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조합은 사회질서와, 결속의 건설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노동 3권을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통하여서만 이 나라에 진정한 산업평화와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전례 해설

성모승천 대축일

성모승천이란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계획 사업에 가장 친밀하게 동참하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상생활을 끝내신 후 영혼과 육신이 천상으로 옮겨지셨음을 말한다.

교회는 조세기부터 성모승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 오고 있다. 4~5세기 교회 문헌을 보면 성모승천을 축일로 지냈음을 볼 수 있으며 8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교회에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모승천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믿을 만한 전승과 구원사에 있어서의 성모님의 역할, 성모님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성모님이 차지하는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성모승천의 교리가 신학적 결론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모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공포하여 믿을 교리로 선언하셨다.

성모님의 모든 축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신비와 직결되어 있다. 교회가 인준한 성모신심의 여러가지 형태는 성모께 대한 공경을 통해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자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나 하느님께 자기 생명과 전 생애를 다 바쳐 온전히 순응하셨으며 하느님과 생명의 친교를 온전하게 누리셨다. 단순히 예수님을 낳았다는 데에 성모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누구보다 착실하게 실천하셨으며 참된 믿음과 참된 겸허함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성모승천 축일은 지금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축일이다. 하느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는 비록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성모님처럼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작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부른 찬미가를 우리도 감동에서 차서 부를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를 위한

마리아의 집 안내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은 주로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도 상담하며 보호하고 있다.

주소 : 200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97의 1
전화 : (0361) ④ 4 6 1 7

대중음식점·연회석완비
대형에어큰 가동

대 건 회 관

전복은행 본점 후문앞
(구, 미가도)
☎ 6-7566

김 한 영(안토니오)
하 정 희(엘리사벳)

진선미 꽃 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군산 태 광 약 국

☎ ② 1 8 0 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혼수장 및 가구류 일절 리바트 전주대리점

고객 여러분의 실내 예술을 창작코저 확장, 새롭게 장단하였습니다
☎ 6-8447
<월드컵 사거리>
홍 의덕<모니카> 장 동진



- ☆ **축! 견진:** 신대인 분당(15일)
 1. 신부님 귀국·출국: 귀국(7월 31일) - 양 재철 신부님(해외 연수 마치고), 출국(8월9일) - 조 정오 신부님(필리핀)
 2. ME 제7차 주말 강습: 17일~19일, 장소-광주 피정 센터
 3. 베소라 성서 휴강: 전주지구-8월 7일~9월 11일(개강-9월 11일)
 군옥지구-8월 9일~9월 6일(개강-9월 6일)
 4.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부리아 피절: 9월 2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장소-전동성당
 대상-소년 브레시디움 전단원(※제2대 지도신부-정 양현 신부님)
 * 다음주 공지사항은 월요일(13일) 오전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15일 휴무 관계로)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1)

(중양)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전화 ⑥1711~3

1. 부리아: 오후 2시
 2. 성모회 정기총회: 19일
 3. 첫영성체: 봉소승천대축일 10시30분 미사에
 4. 분당신부님(발토로메오) 영명축일: 24일 기도 바랍니다
 5. 돼지저금통: 얼마나 자랐나요
 6. 벽돌봉헌: 28,134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899,636원 교무금: 662,000원
 감사헌금: 서바오우-5만원, 양미카엘라-5천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수 재
 신부 ⑥9369번
 수·사 ⑦7032

1. 신축기금 수입합시다: 아대환-50만원, 조성용-진기성-각 24만원, 박강웅-22만원, 장호임-16만원, 김분정·유정자·김영희-각 15만원, 이연숙·박삼택·장명배·김혜란·송종희·김순자·송명옥-각 12만원, 소계-2,650,000원, 누계-91,926,000원
 2. 몽소승천대축일 미사안내: 14일 저녁 7시30분-전야 미사 및 전야제, 15일 오전 10시-아파트미사, 오전 10시30분-분당 공식미사, 오후 5시-5개공소 합동 미사(왕정공소에서), 저녁 7시30분-저녁미사
 3. 축! 첫영성체식: 15일 공식미사 중에 대상자를 찾고축식 14일 교리후, 부모님들 관심음...
 4. 부리아 회합: 오늘 공식미사 후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건축설계분과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해당 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6. 공소 순회미사: 18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7. 차주전례: 제3조 차절없이 진행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6,565원 아파트: 82,455원
 교무금: 165,000원 아파트: 73,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 불 회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신부(3)2182 보좌 신부 김 요 안
 수녀(72)1222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L.M 부리아(2시 유치원)
 2. 영세식: 14일 밤 8시
 3. 진복유치원 방학특강: 13~24일(오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무료)
 4.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15일 새벽 6시·오전 10시·저녁 8시
 5. 금주 분당청소: 반석회·까리따스회-18일 오후 3시
 6. 다음주 모임(예고): 반석회·성모회
 7. 덕진의 밤 행사: 18일 저녁 6시 30분(특히중·고생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감사: 익명교우 공소(전당리·미산리)에 오르간기증
- 지난주 봉헌금: 301,810원 교무금: 226,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 영 교
 사도 회장 김 성 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교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성모승천대축일: 15일, 미사-새벽 5시·오전 9시·오전 10시30분·오후 3시·저녁 8시
 2. 성당 대청소: 13일 오전 9시, 전단원 협조 바랍니다
 3. 예비자교리: 15일, 신부님·수녀님반 교리 없음
 4. 부리아 회합: 19일, 이달만 사정에 의해 연기합니다
 5. 수녀님들 전국회합: 16~18일
 6. 수녀님들 휴가: 이수녀님(19~28일)
 7.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모친
- 차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8. 교무금 미납자 속히 완납 바랍니다
 9.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26,710원 교무금: 447,40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김 낙 균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성모 몽소승천대축일 미사: 새벽 5시30분, 10시 공식미사, 저녁 7시30분
 2. 모임: 부리아-오늘 오후 2시, 성심회-13일 오후 2시, 울뜨레아-14일 저녁미사 후,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요나회(청년모임):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4. 축하합니다: 어린이 첫영성체 39명
 5. 감사: 성당내부 페인트공사, 익명-20만원
 6. 차주전례: 독서-①박경환 ②김상곤
- 지난주 봉헌금: 324,545원 교무금: 189,000원

(숲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김 수 겸
 전 화 ⑥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주·유·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승천대축일: 15일 미사후, 사도회 전체회의
 3. 부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성지순례: 20일
 5.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기도-김형체·이은자
 6.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기도-문안나·선종현
- 승천축일: 해설-이철수, 독서-기도-강 상·김정분
- 지난주 봉헌금: 186,240원 교무금: 315,6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치 삼
 사도 회장 김 병 오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 ※ **축! 성모승천대축일(15일)미사:** 주일과 동일합니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3.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꼬미시움: 다음주 오후 2시
 5. 성마리아 부리아: 다음주 오후 4시
 6. 주일학교 하계교리에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추환(다두)·민혜자(마리아))
 7. 글로리아 성가대 성모승천기부 미사의 밤: 14일 오후 7시30분
 8. 업종별 신자명부 작성중: 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세요
 9. 감사합니다: 이마리아(금우)씨가 성좌·성합(시가 80만원)을 분당에 헌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 중·고생 1일 아영캠핑: 18일~19일 번산반도
 11. 다음주 전례담당
-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우,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최종만 ②이 훈
- 지난주 봉헌금: 715,360원 교무금: 581,000원

(호자동)

주임 신부 박 중 신
 사도회장 이 교 성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환영합니다: 김라우라 수녀님 그동안 신수녀님 수고 많았습니다
 2. 축하합니다: 성인 영세자(33명)
 3. 지성인 예비자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 분당 대청소: 13~14일
- 지난주 봉헌금: 240,350원 교무금: 198,000원